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원장 정혜진)’을 방문하여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센터별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 연계

** '23.9월 기준 28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수급자 1,99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중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집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490)
		담당자	서기관	박성원 (044-202-3494)
			사무관	윤서영 (044-202-3495)



□ **개요**

- (일시) '23. 11. 10. (금) 13:30~15:10
- (장소) 우리동네 30분 의원 (서울시 마포구 소재)
- (참석자)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요양보험제도과장 등
재택의료센터 원장, 담당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 (내용) 재택의료센터 현장 의견 청취 및 재택의료 가정 방문 동행

□ **진행 순서(안)**

시 간	소요(분)	내 용	장 소
13:30~14:10	'40	현장 간담회	재택의료센터
14:10~14:30	'20	이 동	.
14:30~15:10	'40	재택의료 가정 방문 동행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 **추진배경**

-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 마련

□ **사업 개요**

- (기간) '22.12.1. ~ '23.11.30. ('23.12월까지 연장)
 -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등 예정
- (수행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28개소(의원급 22,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6)
- (대상자)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 제외
- (서비스 내용)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신설)를 더하여 지급

구 분	급 여 비 용
건강보험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6,900원) , 본인부담 30%
장기요양 보험	▶ 재택의료기본료 ¹⁾ , 추가간호료 ²⁾ , 지속점검료 ³⁾ (신설)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無 2)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47,450원 지급,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 지급, 본인부담 無